



‘찬밥 신세’ 쌀 소비 늘려주세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를 먹자는 ‘백설기 데이’ (3월14일)가 올해 11번째를 맞았다.

해마다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1인 1일당 양곡 소비량은 밥 두 공기도 되지 않는 155.8g이 됐다.

13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남지역 농협 쌀 판매량(조곡·정곡)은 4만 761t으로, 전년 같은 기간(5만4947t)보다 25.8%(-1만4186t) 감소했다.

쌀 매출은 658억원으로, 전년(959억6600만원)보다 31.4%(-301억6600만원)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 도정이 되지 않은 조곡 판매량은 2만4693t에서 1만4524t으로, 41.2%(-1만169t) 감소했다.

정곡 판매량은 3만254t에서 2만6238t으로, 23.2%(-4016t) 줄었다.

전남은 지난해 6년 만의 쌀 풍년을 맞아 전년보다 14.8%(10만1838t) 증가한 78만9650t이 생산됐지만, 쌀값 급락에 시름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벼 수매가(조곡 40kg)는 6만3860원으로, 전년 6만9429원에 비해 8.0%(-5569원) 급감했다.

우리 쌀의 ‘찬밥 신세’는 공기밥 300원도 되지 않는 쌀값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정곡 20kg)은 전년보다 9.2%(-5072원) 하락한 5만128원으로 집계됐다.

1g당 2.5원인 산지 쌀값에 비해 환산한 밥 한 공기(100g) 쌀값은 250.6원이다.

쌀값 하락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수급 예측 실패 탓도 있지만 쌀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식습관

밥 한 공기 쌀값 ‘250원’

하루 두 공기도 안 먹어

소비량 37년째 내리막길

오늘 11번째 ‘백설기 데이’

농협, 쌀 소비 촉진 안간힘

도 한 몫 하고 있다.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전년(57.7kg)보다 1.4%(-0.8kg) 감소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감소세는 지난 1984년(130.1kg) 이후 37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

1인 1인당 쌀 소비량은 전년보다 1.4%(-2.2g) 줄어든 155.8g으로, 국민 한 명당 하루에 밥

두 공기도 채 먹지 않는 셈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1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11회 백설기 데이’ 행사를 각각 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지난 2012년 3월 14일을 ‘백설기 데이’로 제정했다.

사탕 등을 주고 받는 ‘화이트데이’로 알려진 이날 우리 민중 고유 음식인 백설기를 선물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농협 전남본부는 ‘백설기 데이’를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전남 쌀 대표브랜드 풍광수도 구매고객에게 쌀 1kg을 추가 증정한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2021년 국민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 쌀 소비는 종자주권을 확보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실천으로서, 이번 백설기 데이를 계기로 우리 쌀 소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 세 번째)는 지난 11일 농협하나로마트 남약점에서 ‘11회 백설기 데이’ 행사를 열고 방문객들에게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를 나눠줬다. <전남농협 제공>

“양파값 안정 근본 대책 내놓아라”

전남 농민들 “무안·고흥 100ha 산지 폐기 미흡”

양파값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가 올해 수확을 앞둔 조생양파밭 100ha에 대한 산지 폐기 방침을 밝혔지만, 무안과 고흥지역에 국한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3일 전남도와 양파 생산단체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5일 조생양파밭을 무안 60ha, 고흥 40ha 등 총 100ha를 산지 폐기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산지 폐기 대상 면적은 무안과 고흥 조생양파 재배면적의 각 10% 가량이 해당한다.

이번 산지 폐기에는 ㎡당 2745원(평당 9060원)의 기준 단가가 적용된다.

재원은 전남도 20%, 지자체 50%, 농협 20%, 농가 자부담 10% 등으로 마련된다.

하지만 이번 산지 폐기에는 함평과 신안, 장흥 등 다른 지역 물량이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2021년산 저장양파가 이달 중순까지도 소진되지 않아 가격 급락이 겹치지 않으면서 농민들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양파연합회와 한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2022년 전국양파생산자대회’를 연다.

양파 생산자 측은 2021년산 저장양파 2만t 즉각 수매·폐기와 올해 조생양파밭 144ha를 오는 20일까지 산지 폐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양파 생산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인근에 저장양파 20t을 아적한다. 또 농식품부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매일 2t을 추가로 쌓기로 했다.

양파 생산 3단체는 양파값 급락의 책임을 수급 예측에 실패한 정부에 물으며 지난달부터 제주와 고흥, 무안 등에서 밭 갈아엎기 시위를 벌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2022년산 양파 생산 및 가격 전망’ 자료에 따르면 이달 상순 양파 도매가격(상품)은 kg당 461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785원)보다 74.2%(-1324원) 낮은 수준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봄 가뭄 대비 지하수 개발 등 응급 지원

농어촌공사 ‘KRC 지하수 지질 기술지원단’ 확대 운영

13일 광주·전남에 오랜 가뭄을 끝내는 단비가 내린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KRC 지하수지질 기술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전국 165개 시군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하수와 지질 분야 응급재해에 대비한 긴급 지하수개발 등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존 ‘KRC 지하수 지질 기술지원단’을 137명에서 171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나주 본사를 비롯한 9개 지역본부에서 운영한다.

지하수 분야에서는 긴급 지하수 개발과 가뭄 지원, 지하수 시설물 점검을, 지질 분야에서는 저수지 안전 점검과 누수조사 등을 지원한다.

농어촌공사는 지하수와 지질 분야 전국 최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기술지원단 발족 이래 3만여 건의

기술 지원을 했다.

특히 상습 가뭄지구인 강원 속초에 지하수 댐을 설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지하수 댐은 땅속에 물막이 벽을 세워 지하 공간을 저수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1984년부터 전국 6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극심한 가뭄에도 증발로 인한 손실 없이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확보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속초지역은 주 취수원인 쌍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해 물 저장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어 2개의 지하댐을 설치, 하루 1만2000t의 물을 추가로 공급한다.

농어촌공사는 봄 가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긴급 지하수개발과 위치선정, 지자체 관리 시설물의 신속한 점검도 지원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

농업인 농지 매입 부담 완화... 지원단가 10% 상향

농림부 오늘부터 시행

14일부터 농지매입자금 지원단가가 10%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은행사업(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지침 개선은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매매사업은 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농지매입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리 1%)으로 지원한다.

올해 농지매입자금 지원단가는 전년보다 10% 인상된다. 일반농지(논·밭) 취득 때 지원금액은 기존 ㎡당 1만890원에서 1만2000원으로, 10.2% (1110원) 오른다. 2030세대 청년농이나 생애 첫 농지 취득 때는 ㎡당 1만3915원에서 1만5240원으로, 10.8% (1505원) 인상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대상도 확대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

는 사업이다.

기존과 달리 농지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의 110%를 초과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시납부 약정결제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 농지 매입 상한단가는 ㎡당 60-10만5000원에서 60-11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경영회생지원 농민에 대한 입차료는 매입가격 1% 이내였지만 해당지역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인한다. 농식품부는 개선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농지은행 지사(93개소)와 시군구(읍면동) 등에 비치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전자우편, 문자 등을 직접 보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번기 인력 수급 중점관리 지역 선정

농림부, 나주 등 25개 시군 인력중개센터 확대·외국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농번기가 시작됨에 따라 인력 수요가 많은 25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사과 등 인력 수요가 많은 상위 6개 품목의 주산지인 전남에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으로 나주와 무안, 신안, 고흥, 해남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30곳에서 올해 155곳으로 확대하고 12개 시·군에서는 사과,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수확 작업을 위해 체류형 영농작업반으로

57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약 2만명이 농업 분야의 일손을 돕는다. 올해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뒤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도 처음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무안과 경남 창녕·함양, 경북 영천 등 4개 지자체에 331ha의 마늘·양파 기계화 시범단지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 시범단지 면적을 300ha 추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백희준 기자 bhj@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